

제4장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 인구사회학적 요인
2.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3. 아동학대사례 유형
4.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5. 서비스 제공 현황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04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 인구사회학적 요인

1) 피해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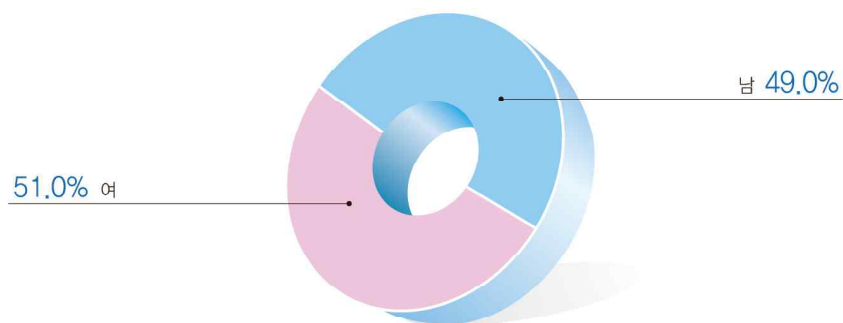
가. 피해아동 성별

2015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11,715건을 대상으로 <표 4-1>과 같이 피해아동의 성별을 살펴보았다. 남아가 5,745건(49.0%), 여아가 5,970건(51.0%)으로 남아랑 여아 간 큰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피해아동 성별

(단위: 건, %)

| 남 | 여 | 계 |
|-------------|-------------|---------------|
| 5,745(49.0) | 5,970(51.0) | 11,715(100.0) |



<그림 4-1> 피해아동 성별

나. 피해아동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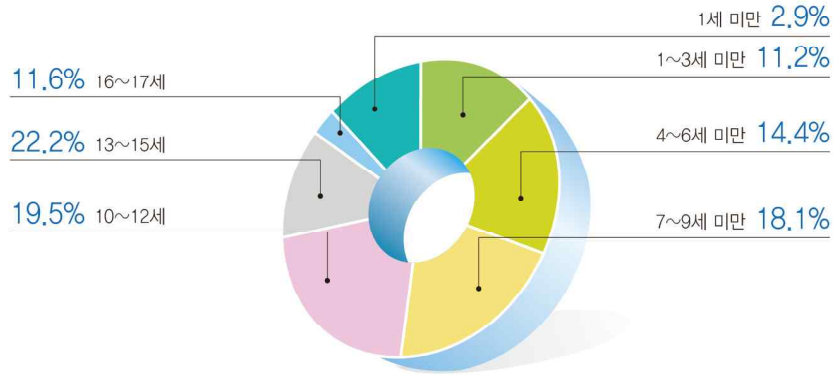
피해아동의 연령별 분포를 <표 4-2>와 같이 살펴보면,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의 2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만 10~12세가 19.5%,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 7~9세가 1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학령기에 해당하며, 전체 피해아동의 59.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학령기 아동이 학교 및 학원 등 외부 환경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 노출되어 학대 사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만 6세 미만은 28.5%로, 이는 영유아기에 해당한다. 영유아기는 아동 발달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이며, 아동이 부모와 주요한 애착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 부모에 의해 학대가 이루어질 경우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부터 의무교육 대상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굴을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예방접종, 건강검진, 출생신고 등 미실시 영유아 가정에 대한 상시적 양육환경 점검을 통해 아동의 안전 확보 및 양육방법,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취학·장기결석 등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학생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4-2> 피해아동 연령

(단위: 건, %)

| 연령(만) | 건수(비율) |
|-------|---------------|
| 1세 미만 | 344(2.9) |
| 1세 | 312(2.7) |
| 2세 | 457(3.9) |
| 3세 | 543(4.6) |
| 소 계 | 1,312(11.2) |
| 4세 | 570(4.9) |
| 5세 | 485(4.1) |
| 6세 | 628(5.4) |
| 소 계 | 1,683(14.4) |
| 7세 | 696(5.9) |
| 8세 | 700(6.0) |
| 9세 | 727(6.2) |
| 소 계 | 2,123(18.1) |
| 10세 | 717(6.1) |
| 11세 | 859(7.3) |
| 12세 | 713(6.1) |
| 소 계 | 2,289(19.5) |
| 13세 | 827(7.1) |
| 14세 | 920(7.9) |
| 15세 | 853(7.3) |
| 소 계 | 2,600(22.2) |
| 16세 | 760(6.5) |
| 17세 | 604(5.2) |
| 소 계 | 1,364(11.6) |
| 계 | 11,715(100.0) |



〈그림 4-2〉 피해아동 연령

다. 피해아동 가족유형

피해아동의 <표 4-3>과 같이 가족유형을 분석한 결과, 친부모가족이 5,779건으로 전체의 49.3%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친부모가족 외 형태는 5,177건으로 44.2%였으며, 대리양육형태와 기타는 각각 220건(1.9%), 58건(0.5%)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친부모가족 외 형태 중 한부모가족 형태에 해당하는 부자가정과 모자가정, 그리고 미혼부·모가정을 합하면 총 3,578건으로 전체 피해아동 가족의 30.5%를 차지한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소득은 월 189만원 수준으로 전체가구 평균 가구 소득 389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부모가정 미취학 자녀의 12%, 초등생 자녀의 54.4%가 평일 일과 후 돌봐주는 어른 없이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부모의 역할을 홀로 감당하고 있고 양육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은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일 수 있기에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 및 자립지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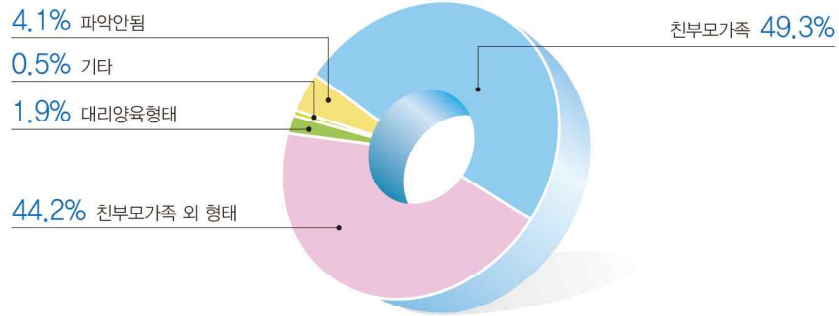
대리양육형태의 경우, 시설보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155건(1.3%)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입양가정 34건(0.3%), 가정위탁 31건(0.3%)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2014년 208건에 비해 25.5%가 감소하였으며,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4-3〉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건, %)

| 친부모 가족 | 친부모가족 외 형태 | | | | | | | | 대리양육형태 | | | | 기타 | 파악 안됨 | 계 |
|-----------------|-----------------|-----------------|--------------|--------------|--------------|--------------|------------|-----------------|-------------|-------------|--------------|--------------|-------------|--------------|-------------------|
| | 부자 가정 | 모자 가정 | 미혼 부모 가정 | 재혼 가정 | 친인척 보호 | 동거 (사실혼 포함) | 소년 소녀 가정 | 소계 | 가정 위탁 | 입양 가정 | 시설 보호 | 소계 | | | |
| 5,779 (49.3) | 1,855 (15.8) | 1,483 (12.7) | 240 (2.0) | 869 (7.4) | 320 (2.7) | 403 (3.4) | 7 (0.1) | 5,177 (44.2) | 31 (0.3) | 34 (0.3) | 155 (1.3) | 220 (1.9) | 58 (0.5) | 481 (4.1) | 11,715 (100.0) |

* 여성가족부(2015).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그림 4-3〉 피해아동 가족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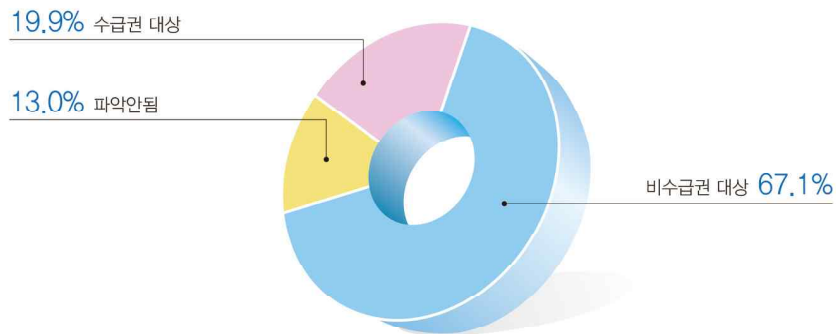
라.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피해아동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를 〈표 4-4〉와 같이 살펴보면, 수급권 대상 아동이 전체의 19.9%에 해당하는 2,335건이다. 비수급권 대상 아동은 7,857건(67.1%)이고, 수급권 여부가 파악 되지 않는 경우는 1,523건(13.0%)으로 나타났다.

〈표 4-4〉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단위 : 건, %)

| 수급권 여부 | 건수 (비율) |
|----------|-----------------------|
| 수급권 대상 | 2,335 (19.9) |
| 비수급권 대상 | 7,857 (67.1) |
| 파악안됨 | 1,523 (13.0) |
| 계 | 11,715 (100.0) |



〈그림 4-4〉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마. 피해아동 특성

〈표 4-5〉는 피해아동의 특성을 장애, 정서·정신건강, 적응·행동, 발달·신체건강, 특성없음 및 기타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되는 경우에 중복적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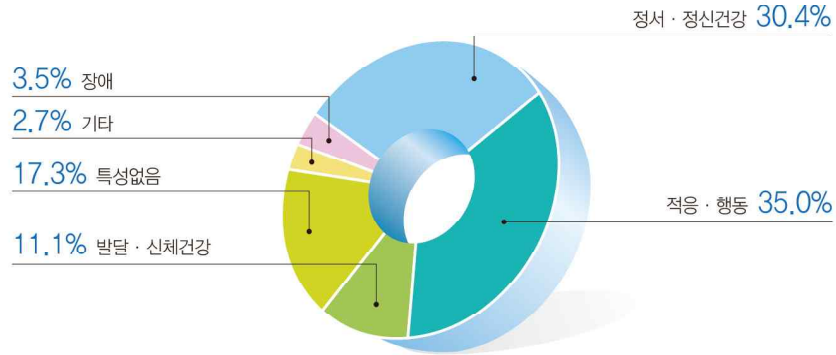
피해아동의 주된 특성은 반항·충동·공격성, 거짓말, 도벽 등과 같은 적응·행동으로 전체의 35.0%에 해당하는 8,382건이었다. 다음으로는 정서·정신건강으로 7,279건(30.4%), 특성없음이 4,150건(17.3%), 발달·신체건강이 2,667건(11.1%), 장애가 838건(3.5%), 기타가 647건(2.7%)이었다. 여기서 피해아동에게 뚜렷한 특성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17.3%를 차지하는데, 이는 아동의 특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학대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적응·행동 중에서는 반항·충동·공격성이 1,294건(5.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거짓말 920건(3.8%), 약물·흡연·음주가 848건(3.5%), 학교부적응이 787건(3.3%)으로 나타났다. 정서·정신건강 중에서는 불안이 1,819건(7.6%)으로 가장 높았으며, 주의산만이 1,120건(4.7%), 우울이 737건(3.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발달·신체건강 중에서는 위생문제가 841건(3.5%)으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는데 이는 대체로 학대행위자가 행한 방임의 결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장애의 경우, 15가지의 장애 유형을 신체 및 정신적 장애로 나누었으며 그 외에 공식적인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아동이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또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정신적 장애가 355건(1.5%)으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가 344건(1.4%), 신체적 장애가 139건(0.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아동의 특성을 학대유발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학대로 인한 후유증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의료적 지원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표 4-5〉 피해아동 특성

(단위 : 건, %)

| 특성 | | 건수(비율) |
|----------|---------------|----------------------|
| 장 애 | 신체적 장애 | 139(0,6) |
| | 정신적 장애 | 355(1,5) |
| | 장애의심 | 344(1,4) |
| | 소 계 | 838(3,5) |
| 정서· 정신건강 | 주의산만 | 1,120(4,7) |
| | 과잉행동 | 525(2,2) |
| | 인터넷(게임)중독 | 307(1,3) |
| | 불안 | 1,819(7,6) |
| | 애착문제 | 686(2,9) |
| | 무력감 | 527(2,2) |
| | 우울 | 737(3,1) |
| | 낮은 자아존중감 | 633(2,6) |
| | 성격 및 기질 문제 | 647(2,7) |
| | 탐식 및 결식 | 278(1,2) |
| | 소 계 | 7,279(30,4) |
| 적응· 행동 | 반항· 충동· 공격성 | 1,294(5,4) |
| | 거짓말 | 920(3,8) |
| | 도벽 | 595(2,5) |
| | 가출 | 728(3,0) |
| | 약물· 흡연· 음주 | 848(3,5) |
| | 성문제 | 222(0,9) |
| | 학교 부적응 | 787(3,3) |
| | 잡은 결석, 무단결과 | 609(2,5) |
| | 늦은 귀가 | 584(2,4) |
| | 학습문제 | 668(2,8) |
| | 폭력행동 | 389(1,6) |
| | 비행집단활동 | 198(0,8) |
| | 불건강한 또래 관계 | 296(1,2) |
| | 대인관계기피 | 244(1,0) |
| | 소 계 | 8,382(35,0) |
| 발달· 신체건강 | 신체발달지연 | 270(1,1) |
| | 언어문제 | 697(2,9) |
| | 영양결핍 | 133(0,6) |
| | 대소변문제 | 189(0,8) |
| | 위생문제 | 841(3,5) |
| | 틱(음성· 신체· 뚜렛) | 88(0,4) |
| | 잡은 병치레, 허약 | 152(0,6) |
| | 주요병력 | 297(1,2) |
| | 소 계 | 2,667(11,1) |
| 특성없음 | | 4,150(17,3) |
| 기타 | | 647(2,7) |
| 계 | | 23,963(100,0) |



〈그림 4-5〉 피해아동 특성

2) 학대행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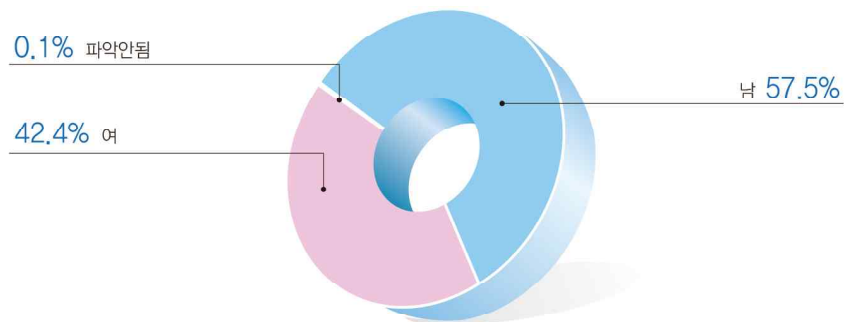
가. 학대행위자 성별

2015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11,715건을 대상으로 학대행위자의 성별을 〈표 4-6〉과 같이 분석한 결과, 남성은 전체의 57.5%에 해당하는 6,736건이었으며, 여성은 4,967건(42.4%),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는 12건(0.1%)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과 비슷한 양상이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건, %)

| 남 | 여 | 파악안됨 | 계 |
|--------------|--------------|----------|----------------|
| 6,736 (57.5) | 4,967 (42.4) | 12 (0.1) | 11,715 (100.0) |



〈그림 4-6〉 학대행위자 성별